

BTS “광주서 지구촌 최대 수영축제 함께 즐겨요”



‘방탄소년단’이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슈퍼콘서트’ 무대에 올라 “광주수영대회 큰 관심을 가져달라”며 부탁한 뒤 공연을 시작하자 3만5000여명의 관객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둔 광주가 ‘방탄소년단’의 화려한 공연으로 들쭉날쭉했다. 국내외에서 광주로 몰려든 3만5000여명의 인파가 ‘K-Pop’ 열기에 빠져들면서, 74일 앞으로 다가온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분위기도 한껏 고조됐다.

〈관련기사 3·4·5·6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슈퍼콘서트’가 28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콘서트에는 3만5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 가운데 1만 여명은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전 세계 65개 국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D-74 슈퍼콘서트 방탄소년단 등 10개 팀 뜨거운 무대
 광주월드컵경기장 아시아·유럽·미주 등 국내외의 3만5000여 관중들 K-Pop에 열광
 BTS 제이홉 “나 전라남도 광주 baby~” ... 성숙한 관람 문화 시민의식도 빛나

가에서 온 K-Pop 한류팬과 주한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공연에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외에 트와이스, 모모랜드, 아이즈 원, 흥진영, 엔 플라잉, 네이처, 더보이스, TXT, 체리블렛 등 10개 팀이 출연했다.

특히 세계 최정상에 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이날 콘서트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공연장 안팎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마지막 순서로 출연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오랜만에 찾은 광주는 팀의 자랑

인 제이홉의 고향이기에 특별한 도시”라고 말해 3만여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제이홉은 “나 전라남도 광주 베이비”라고 시작하는 자신의 작사곡 ‘마 시티(MA-CITY)’의 한 대목을 즉석으로 부르기도 했다.

방탄소년단과 광주 출신인 흥진영 그리고 걸그룹 ‘네이처’의 로하 등 대부분의 출연 가수들은 “오는 7월 광주와 여수에서 열리는 대회에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면서 세계수영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이날 콘서트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아이돌 그룹들의 출연 소식에 3회에 걸쳐서 11번가에서 온라인 입장권을 배포할 당시 1~2차 모두 1분도 안돼 마감됐으며 추첨 방식인 3차 때도 신청자가 몰려 ‘티켓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한 관람객을 위해 행사장 밖 2곳에 이동식 무대 차랑을 설치해 공연을 생중계했고, 5000여명이 이동식 차랑을 통해 공연

을 관람했다. 녹화 방송은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광주시민들의 시민 의식도 빛났다. 이른 아침부터 공연장 주변과 인근 도로는 먼저 티켓을 발급 받으려는 인파와 차량이 몰리며 복새통을 이뤘지만, 큰 사고 없이 질서정연하게 공연이 마무리됐다.

앞서 광주시와 조직위는 관람객 대부분

워라벨 시대 - 대전 만년동 문화벨트 ▶ 18면
 KIA 타이거즈 다시 꼴찌 추락 ▶ 20면

호남예술제 피아노 입상자 ▶ 17면

이 10대일 것으로 예상하고, 15세 미만은 부모와 동반 관람하도록 하고 안전, 교통, 숙박 관광 종합 대책을 추진했다. 경찰은 공연장 인근에 병력 10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광주시 소방본부는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구급차 5대와 구조버스 1대, 응급의료 요원을 현장에 배치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세계 최고를 넘어, 新에너지 세상으로 -

섬은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햇살이, 바다가, 바람이
 내일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에서 전기를 만들고
 마법처럼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전력이 꿈꾸는
 깨끗한 에너지 세상입니다.

세계 1위 전력회사를 넘어
 깨끗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Beyond the Top, Leading KEPCO-

